

광주U대회 '실전 시나리오' 나온다

조직위, 68개 경기·비경기 현장운영계획 수립 11월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 시범 적용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개최 3년여를 앞두고 현장운영계획을 수립한다.

현장운영계획(VOP: Venue Operation Plan)은 경기장 등 각 현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매뉴얼로, 대회운영을 위한 준비계획의 최종 단계다. 지난해 완성한 표준운영계획(Action plan)이 직무를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라면, 현장운영계획은 세부 직무에 따라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시나리오인 셈이다.

조직위는 이달부터 경기장 43개와 비경기 장소 및 지원분야 25개 등 총 68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능별 계획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이는 다 대회보다 1년 이상 빠르다. 각 경기장 뿐 아니라 ▲선수촌, 본부호텔 등 비경기 장소 ▲물자, 수송, 의료도움, 국제협력,

의전, 정보통신, 미디어 등 지원기능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인력 및 물자, 직무기술, 업무처리요령 등 대회운영의 모든 업무를 체계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을 표준모델로 채택,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에 종목별 전 경기장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운영계획은 경기단체 전문가 자문, 모의대회 등 사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대회전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게 된다.

김윤석 사무총장은 "지난해 이



"복쌈 맛보세요" 김수출 1억불 달성 제1회 전국김의날 대한민국 웰빙 김 페스티벌 행사'가 6일 고충군 팔영체육관에서 열려 박준영 도지사,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박상천 국회의원, 전국 김 생산·가공 기업인,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오곡밥을 김에 싸먹어 복을 기원하는 복쌈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올해 지방공무원 1만330명 채용

전년비 436명 ↑... '일반직 8천53명' 2008년 이후 최대 규모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1만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 한다고 6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8천53명을 비롯해 소방직 등 특정직 1천543명,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이다. 전체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436명 증가했다.

일반직은 지난해 7천748명에 비해 305명(3.9%) 늘었다. 이는 지난 2008년(9천309명) 이후 최대 규모

다. 2009년에는 3천690명, 2010년에는 4천211명에 그쳤다.

일반직의 직급별로는 9급이 행정직 5천98명, 기술직 2천438명 등 7천536명이고 7급 331명, 연구·지도직 186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천1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91명, 경북 751명, 경남 654명, 충남 515명 순이다. 인천이 지난해보다 64.0% 많은 271명을 뽑는 등 충남(41%), 경기(36%), 강원(29%), 경남(14%)의 채용 인원이 증가한 데 반해 서울은 34%, 대구는 49% 감소했다.

공채 일정은 다음 달까지 지자체별로 공고하며 서울시를 제외하고 행안부에 시험 출제를 위탁하는 15개 시도 9급 공채시험은 5월 12일, 7급 공채시험과 사회복지직 시험은 9월 22일 치러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응시 수수료 등이 면제되고, 경력경쟁 시험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시험 위원이 3명 이상 이 되고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 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1천200곳 전수조사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1천200개 전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강원태 광주시장은 6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돼 인권도시가 뿌리내린다"며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단체, NGO를 참여시켜 표준운영절차를 빠른 시일내 만들어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지, 복지지원금이 100% 보호대상자에게 집행되고 있는 지, 복지시설 후원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후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삭힘의 미학' 신안 특산 흥어 '냄새나는' 세계음식 2위

신안의 특산 흥어가 냄새나는 음식 세계지도 2위를 차지했다. 한번 먹으면 중독성이 강한 '삭힘의 미학'을 평가받은 것이다.

신안군은 일본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 재팬'에 공개된 세계의 악취 음식 세계지도에 2위로 흥어가 올랐다고 6일 밝혔다.

1위는 소금에 절인 청어를 2개월가량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켜 만든 스웨덴의 통조림 '수르스트뢰밍'이 등극했다.

흥어는 삭히는 과정에서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를 발산하기 때문에 먹는 순간 코를 찌르면서 톡 쏘는 자극이 기갑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그 맛을 못 잊어 또 찾는 마니아들이 많다.

삭힘 흥어가 냄새가 강하지만, 한번 먹으면 중독을 유발하는 '삭힘의 미학'이 있어 악취 음식 세계지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막걸리 열풍 속에 흥어 삼합(삭힘 흥어+묵은 김치+익힌 돼지고기)은 웰빙 음식으로 더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 발전 역할 할 것" 안철수 '정치 참여' 가능성 시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은 6일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안 원장은 이날 안철수재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든 좋은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여전히 총선에서의 야권 지원이나 대선 직행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발언은 최근 안 원장이 헌 단계에서의 정치 참여에 대해 거리를 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달 미국 출장을 떠날 때부터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을 직접 드러냈으나, 귀국



"정치는 묻지 마세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안철수재단(가칭)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원장은 기자들에게 "정치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말라"고 주문하며 웃음으로 일관했다.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안 원장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안철수재단도 상당히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단의 사업 방향성이 발표된 것 자체가 정치 참여와 연관되는 시각이 많다.

안 원장은 지난해 10·26 서울 시장 재보선 당시 후보를 사퇴하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면서 잠재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뒤 기부단 설립 의사를 밝히자, 대권행보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다.

상당수의 사회적 저명인사가 기부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철수재단은 안 원장이 정치 참여를 결심할 경우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 가속화

연내 부지공사 마무리... 입주 맞춰 공사 순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을 비롯한 15개 공공기관이 모두 건축공사를 발주했거나 연내 발주 예정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가속화 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9개 공구로 나눠 추진되는 부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91.5%를 보이고 있어 올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나주역에서 혁신도시 동측으로 진입하는 빛가람로는 41%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도로 및 상·하수도 처리 공사를 비롯한 기반시설 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 혁신도시 공동주택 사업 시행사인 LH공사와 ㈜부영건설은 지난해 2개 단지 1천227세대를 착공했고 올 상반기 나머지 4개 단지 5천11세대에 대해서도 착공할 계획이다. 전남도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앞으로 15개 이전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주택건축, 학교설립문제 등을 위주로 각 공공기관별 맞춤형 순회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 매일신문

"좋은 생활,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650-2016(FAX)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복사기·FAX 임대수리전문

(토너, 종이 외 소모품 일체)

중앙사무기

062)365-4563

(운진각 사거리)

부동산경매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완성

변호사 최정의 법률사무소 법무실장

-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기초과정」

-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과정」

- 대평부동산경매컨설팅 연구소 소장

※부동산경매 더이상의 실전강의는 없다※

- 경매관련법률 이론과실무 전 과정 단독강의

- 여러 명이 출강하는 타 강의와 차원이 다름

법학박사 장 윤 환

▶매월 3~4만원의 저렴한 강의로!!

MBC-TV 방송국 경제교양 강좌 강의

귀중한 당신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경영학박사의

9,000여명이 감동한 명강의!!

2012년 불경기시대의 성공전략!!

부자 프로젝트 부동산 실전경매

▶ 강의일정 : (9월~12월) 선착순 70명 마감

▶ 전남대 - 매주(수)19시~21시 / (목)19시~22시
강의료:(4개월 12만원) (4개월 18만원)

▶ 호남대 - 부동산 최고 전문가 과정
매주(월) 19시~22시 (강의료:27만원)

- 부동산 실전 경매 과정 (강의료:25만원)
매주(화) 주간:10:30~12:30 / 야간 19시~21시

특전

- 재학생 30%할인, 공무원, 교직원, 장애, 노약자, 직전수강자 등 할인혜택

- 부동산관리분석사, 경매분석사 자격취득, 수료후 모의경쟁 통한 정보교류

호남대 평생교육원(평촌동) ☎ 370-8211~3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5

강의 경매컨설팅 상담문의 정영수 박사 017-613-1808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 매
- 임 대 • A/S

☎ 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 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 062)222-1095, 1096

부동산경매 기본완성과정 부동산경매전문가과정

시 간	매주 화요일 19:00~21:00	매주 목요일 19:00~21:00
수강료	15주 : 150,000원	15주 : 180,000원
개 강	2012. 02. 28. 화요일	2012. 03. 01. 목요일
접 수	2012. 02. 01. - 2012. 02. 25. 까지	
접수처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인터넷신청) <http://www.chosun.ac.kr/lifelong>	
대 상	1.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나 자신이 없는 분 2.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조차 전혀 모르신 분 3.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경매에 종사하고 계신 분 4. 경매전문가로서 더 깊은 권리분석을 원하신 분 5. 노후대책 및 업종변경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접수문의 062)230-7700~2